

글쓰기 지식 소매상

- 유시민 작가



유시민(작가)

질문자 이상혁(한성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때 2018. 5. 2.(수) 곳 파주 자유인의 서재

파주 자유인의 서재로 유시민 작가를 찾아갔다. 적지 않은 봄비가 추적 추적 내리던 5월 어느 날, 그와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끈질긴 인터뷰 요청을 결국 허락해 준 유시민 작가. 이 시대의 지식 소매상을 자처하고 대중적 글쓰기를 전업으로 삼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서 정치인이 아닌, 작가 유시민의 내면을 훑어보았다. 역시 그는 달변가였고, 그의 삶은 긍정적이었다. 한국어로 글을 쓴다는 의미와 글쓰기 철학에 대한 그의 대답은 거침이 없었다. 즐겁고 유익한 두 시간이었다.

이상혁 안녕하세요? 유시민 작가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요사이 왕성한 방송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개인적인 근황은 어떠신지요?

유시민 ‘썰전’ 녹화 때문에 월요일만 서울에 가고 매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작업실에 있어요. 나머지 방송은 정기적인 것이 아니라서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 자유인의 서재에서 혼자 보내지요. 재작년부터 강연은 안 합니다. 이제 문필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죠. 개인 사업자입니다(웃음).

이상혁 먼저 선생님의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의 기억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시절은 선생님께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유시민 이승만 정부 시절은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 기억이 없어요. 박정희 군사 독재 시대에 우리는 국민 교육 현장 세대였지요. 국민 교육 현장을 무조건 외우고 이상한 민족주의 교육을 받았어요. 반공 글짓기 대회나 웅변대회에 쫓아다니는 반공의 시대로 요약되기도 하죠. 10월 유신 이후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교련이라는 군사 훈련을 받았죠. 학생들이 예비 군인처럼 지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지성이 모두 이러한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주체적인 사유 능력이 살아 있는 한 이상한 교육을 받아도 그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각을 국가가 개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당시에 이견 아닌 거 같다는 생각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저의 바람이 기억 저편에 남아 있었어요.

이상혁 선생님께서는 중고등학교 때 독서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역사 교사를 역임하신 걸로 아는데요. 가정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유시민 독서를 상대적으로 많이 했겠죠. 저희 아버지께서 6남매에게 책을 많이 읽히려고 학교에 사서 교사를 자원하셨어요. 그래서 끝없이 책을 가져 오셔서 집에 책은 많았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말고는 그때 놀 것이 별로 없었으니까 집에 굴러다니는 책을 주로 보게 되었지요. 어린이 신문과 월간 잡지를 구독할 수 있어서 문자 텍스트

트를 접할 기회가 적지는 않았어요. 초등학생 시절에는 누나들이 읽던 《툼 소녀의 모험》, 《빨강머리 앤》, 《소공녀》 이런 거 읽으면서 주인공이 이유 없이 핍박받는 모습 때문에 아주 분개했던 기억도 나네요(웃음). 중학교 때는 주로 루팡 시리즈를 비롯한 추리 소설을 죄다 읽었어요. 무협지도 좀 봤지요. 고등학교 때는 입시 때문에 그런 책들은 끊고 가끔 공부가 안 될 때 《죄와 벌》, 《좁은 문》, 《주홍 글씨》, 《여자의 일생》 등 이른바 명작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모파상 단편집》, 《체호프 단편집》은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책이었어요.

이상혁 선생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사회 대학에 입학하셔서 경제학을 전공 하셨네요? 왜 경제학이었습니까?

유시민 원래는 법대를 가려 했어요. 그런데 유신 체제일 때라 군부 독재 정권에서 판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았어요. 집에 가서 ‘나 박정희 밑에서 판사 못 하겠어요.’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 그냥 다른 과를 가기로 정하고 경제학과를 선택한 거예요. 당시에 경제학도가 합격선이 더 높았고 취직도 엄청 잘될 때였거든요. 부모님께 말하기 좋잖아요? 그때는 세간에서 경제학과라고 안 부르고 ‘상대’라고도 했어요. ‘서울 상대’ 이라면 또 좀 괜찮잖아요? 법대는 가기 싫고 다른 사회대 전공은 마음에 안 들고, 집에 설명은 해야겠고……. 그래서 제일 말하기 좋은 전공이 ‘경제학’이라서 그만 가게 되었지요. 경제학 관련 에세이도 출간했지만, 사실 저는 경제학에 재능이 없어요. 지금이라면 사회학이나 인류학을, 인문 대의 역사학이나 언어학을 선택할 겁니다.

이상혁 선생님의 대학 4년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습니까만, 그 당시에 우리말이나 글쓰기에 대한 관심은 없으셨나요?

유시민 제가 당시에 대학은 3학년, 그러니까 1980년 5월까지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글을 공개적으로 써 본 적도 없었지요. 그 5월에 대학생 병역 훈련 거부 선언문이 아마 제가 처음 써서 공개한 글인가 싶네요. 당시 제가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었어요. 그런데 총학생회 주위에서 아무도 그 선언문을 안 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도서관에 가서 프랑스 인권 선언 등의 자료도 찾아보면서 며칠 고민한 후 이상한 선언문 한 쪽을 썼어요. 그것이 발표하기 위해 처음으로 써 본 글이었어요.

이상혁 저는 선생님의 <항소 이유서>가 공개적으로 처음 쓴 글인 줄 알았습니다. 그 기록이 남아 있나요?

유시민 모르겠어요. 어디 있겠지요? 민주화 운동 기념관 같은 곳에 있을 까요?

이상혁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스스로 글쓰기에 소질이 있다고 느끼셨 나요?

유시민 1980년 5.18 직후 5월 하순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진술서를 쓰는 동안에는 수사관들이 안 때려요. 그러니까 되도록 진술서를 오래 써야 돼요. 그런데 계엄사 수사관들이 알고 싶어 하는 중요한 내용을 쓰면 절대 안 되지요. 그래서 쓸데없지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실들을 상세하고 길게 썼어요. 예컨대 시위 장면에 대한 묘사 같은 것은 길게 쓰는 거예요. 현수막의 내용은 무엇이었고 시위 행렬은 얼마나 길었으며 시위의 대오는 어떠했고 등등……. 그걸 쓰는 시간만큼은 털 맞으니깐 편지지처럼 생긴 종이에 하루에 100장의 진술서도 쓴 적이 있어요. 정말 팔이 아프게 썼어요. 그래서 그날은 한 대도 안 맞았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쓴 것을 본 수사관이 ‘잘 썼지 않냐’고 하면서 자기 동료나 부하에게 읽어주더라고요. 정말 기억력도 비상한 놈이고 서울대 놈이라 그런지 글도 잘 쓴다고 이러면서 말이에요. 내가

봐도 별 내용도 없는 것을 그럴듯하게 잘 쓴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좀 쓰나 보다.’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이상혁 우문입니다만, 글쓰기는 선천적인 언어 능력의 발현일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노력의 산물일까요?

유시민 둘 다입니다. 노래 잘하고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원래 유전적으로 문자 텍스트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능력이 어린 시절에 일찍 발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성장기에 뇌의 시냅스 구조가 형성된다고 봐요. 물론 많은 외적인 자극과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어린 시절은 언어 능력 향상에 아주 중요한 시기지요. 제가 학교 선생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문자 텍스트가 많이 노출된 환경에서 자랐던 것이 그것을 촉진할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상혁 1980년대 후반에는 문단에 등단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때부터 본격적인 글쓰기를 하신 셈인가요?

유시민 네. 소설도 한 편 썼습니다. <달>이라는 창비 신인 추천 작품이었어요. 지금 보면 좀 수준이 낮은 소설입니다. 그 뒤로 제가 소설을 안 써서 좀 민망합니다. 5.18 때 제적된 후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한 지 한 달 만에 또 잡혀 갔어요. 구속에 이어 징역 1년 6개월 받고 <항소 이유서>라는 걸 그때 썼어요. 그것 때문에 항소심 판사가 6개월을 감형해 줘서 1년 만에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니까 선배들이 주로 성명서, 조사 보고서 따위의 글 쓰는 일을 저에게 시키더라고요. 그때부터 6월 항쟁까지 약 2년 동안 단련된 글쓰기는 한 셈이지요. 그런데 6월 항쟁 후에 유인물을 만들어 돌리다가 또 경찰에 수배가 되었어요. 그때 독산동 자취방을 빠져 이사한 후 은평구 달동네에 숨어 있었거든요. 겨울에서 봄까지 할 일도 없고 해서 한 편 써 본 게 유일한 이 단편 소설입니다.

틈틈이 써 놓았던 글을 좀 손봐 《거꾸로 읽는 세계사》 원고도 그 겨울에 탄생했지요. 그때부터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웃음).

이상혁 생업을 위해서 방송 드라마 대본을 쓰신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시민 방송국에 제가 아는 피디 선생님께서 제 글쓰기 능력을 아셨는지 돈 좀 되는 거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잠깐 했어요. 원작 소설의 멜로드라마 8부작을 각색하는 작업이었어요. 제 이름을 안 쓰고 가명을 사용했어요. 그냥 먹고 살려고 좀 비싼 ‘알바’를 한 셈이죠.

이상혁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청춘의 독서》, 《표현의 기술》, 《유시민의 논술 특강》에 이르기까지 글쓰기와 독서 관련 책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책들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유시민 제가 정치할 때 후원을 많이 했던 분들,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들의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글쓰기 강연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몇 개 도시를 돌며 후원자들의 홍보 도움으로 강연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우리끼리만 공유하고 없애기는 좀 아깝다고 생각해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논술 특강》을 따로 부록처럼 낸 것은 글의 성격이 달라서 글쓰기 특강에는 넣기가 어려웠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서 부록 형태로 《논술 특강》을 출간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글쓰기 상담소를 운영했는데 상담을 받아서 답변을 올려다 주다가 그것도 그냥 없애기에는 아깝다고 해서 책으로 만들었지요.

이상혁 《글쓰기 특강》을 보면 ‘영업 비밀’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글쓰기의 비결을 언급하시고 계신데요. 선생님만의 글쓰기 노하우 한두 개를 말씀해 주세요.

유시민 제일 결정적인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소리를 내서 읽었을 때 발

음하기 쉽고 귀로 듣기에도 나쁘지 않고 뜻이 잘 전달되는 글은 잘 쓴 글이에요. 우리 역사를 보면 인쇄술의 발달, 미디어의 보급이 지식 대중화에 기여한 바가 큼니다. 그런데 지식 대중화와 보통 교육 제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오랜 기간 일부 계층이 문자를 독점하고 향유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 텍스트를 생산하는 기준, 예컨대 문자 텍스트의 미학적 기준과 관념이 소수의 특권 계층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많이 받았고 권력과 그 주변에 있었던 지식 계급의 글은 말에서 멀어졌어요.

이상혁 ‘말처럼 글을 쓰라’ 그런 뜻인가요?

유시민 이른바 문어체는 눈으로 읽으면 괜찮은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 문어체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글이 다 그렇게 가 버리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 대중화, 정보 대중화, 쌍방향 미디어 시대에는 글도 말처럼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말이 근본이예요. 글은 말하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생각과 감정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을 경험적으로 배운 겁니다. 제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오덕 선생님의 주장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글을 읽었을 때 음성 지원이 되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입으로 발음하기 어려우면 눈으로 읽어도 불편해요. 발음이나 소리 중심이 아니라 메시지 중심으로 글을 쓰면 눈으로 읽을 때도 잘 안 읽혀요.

이상혁 이러한 글쓰기 철학에 영감을 주신 분이 계신지요?

유시민 언어의 근본은 말이고 언어의 존재 이유는 소통에 있어요. 이 원리를 저 자신에게 알려 주신 분은 이오덕 선생님이셨어요. <항소 이유서>나 《거꾸로 읽는 세계사》 초판을 다시 보니 제 글이 너무 형편없어서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이오덕 선생님을 직접 뵈는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오덕 선생님의 책을 통해

잘못된 제 글쓰기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결국 제 글쓰기의 큰 스승은 이오덕 선생님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혁 평소에 글을 쓰실 때 개인적인 습관은 있으신가요?

유시민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다만 제 초고는 아주 형편없어요. 저는 그것을 ‘초초고’라고 불러요. 그것을 한참 손봐야 초고가 돼요. 이 ‘초초고’는 출판사 편집자들에게 줄 수 없는 원고예요. 사실 제가 생각은 빠른데 손이 느려요. 제가 ‘독수리 타법’이거든요. 공병우식 타자기로 배운 저는 그냥 손가락 4개 정도로 타이핑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했어요. 타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생각과 손의 움직임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서 제 생각을 제대로 된 문장으로 바로 구성하지 못해요. 중복과 비약도 많아서 생각을 어설픈 문장으로 바꿔 놓은 다음에 그걸 손봐서 초고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초고를 만드는 과정이 오래 걸려요. 처음부터 문장을 정교하게 쓰시는 분들과는 달라요. 쓰다가 막히면 잠시 중단하고 고민하면서 한 단어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글쓰기 습관이 제 초고에는 없어요. 그렇게 해 보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 제 글쓰기는 메시지 중심으로 지나가는 생각을 빨리 붙잡아 두는 데 초점을 두고 글을 쓰는 습관이 있는 셈이지요.

이상혁 문체나 문장의 유려함 차원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책이나 작품이 있으신지요?

유시민 번역된 것인지만 저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문장을 참 좋아해요. 원문의 분위기가 살아 있어요. 원문을 대조하지 않아도 이 원문이 영어의 기본 문장 구조를 잘 지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밀의 문장은 흐름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아주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논쟁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흐름이 매우 자연스럽고 정교해요. 얼핏 보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정교한 논리 구조가 안 보여요. 그런데 최고의 문장이지요. 국내 작가로는 작고하신 리영희 선생님의 글을 좋아해요. ‘시사, 정치, 사회 문제를 다루는 글을 주로 쓰셨지요. 그런데 그분의 글은 문학의 향기가 많이 나요. 《전환시대의 논리》가 대표적이고 자서전 《역정》은 더욱 그렇지요. 제가 그만큼은 못 쓰지만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상혁 문학 작가 중에서 한 분을 꼽는다면 누구일까요?

유시민 박경리 선생님이시지요. 《토지》와 같은 작품은 제가 쓸 수 있는 글은 아니지만 감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휘나 표현이 아주 풍부해요. 글이 고와요. 《토지》는 고운 우리글이고 우리말이에요. 곱고 예쁜 표현과 정교한 문장들로 가득차 있는 작품입니다. 어휘력을 기르고 멋진 우리말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글쓰기에서는 어휘가 기본이기 때문에 저는 《토지》를 반복해서 읽으라고 많이 권했지요.

이상혁 글쓰기는 부와 권력을 얻는 길이기도 하며 단련된 글쓰기는 세상을 움직이는 지도자 덕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시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말이나 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그것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이에요. 그게 없다면 돼지의 삶과 무엇이 달라요? 표현을 통해 소통과 공감을 이루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호모 사피엔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언어야말로 호모 사피엔스를 다른 종과 구별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글쓰기는 우리 종의 특징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고 우리 종의 본성을 이루는 작업이고 나의 본성을 실현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데 성공하면 돈도 벌 수 있어요. 직업으로서

돈을 벌 뿐만 아니라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업무 효율성이 높게 평가받을 수 있잖아요. 어떤 목적론적으로 무엇을 지향한다는 것 이전에 저에게는 글쓰기 자체가 큰 행복입니다.

이상혁 선생님은 언젠가 ‘지식 소매상’을 자처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시민 저는 지식 소매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한 작업이 요약(다이제스트)을 하는 일이었어요. 지식 소매상으로서 쓴 《거꾸로 읽는 세계사》도 거의 대부분 요약이지요. 그런데 지식 생산자가 되려면 도구를 다룰 줄 알아야 해요. 특히 다양한 세계어를 통해 최신 연구 동향과 정보 습득, 그 언어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저는 청년기에 제가 그런 도구를 익힐 기회를 못 가져서 지식 생산자는 안 됩니다. 생산 능력은 안 되지만 유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식 소매상을 자처했지요. 사람들이 널리 알면 좋을 만한 정보들을 편집하고 해석해서 가공하는 작업을 통해 남의 생각과 감정을 소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혁 선생님의 저서가 10권이 넘습니다.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은 어떤 것인가요?

유시민 애착이 가는 책은 내 생각이나 감정이 많이 반영된 책입니다. 그게 비교적 많이 들어간 책이 《청춘의 독서》예요. 예상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판매량은 부진한 책인데 제 자신, 나만의 생각과 감정이 비교적 많이 들어간 책이에요.

이상혁 결론적으로 선생님에게 ‘글쓰기’란 무엇인가요?

유시민 저한테 글쓰기는 사회 속에서 내가 존재해야 할 자격을 저에게 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사회 안에 살아가려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고도로 분업화된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글쓰기는

제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나도 이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갈 존재의 근거를 글쓰기가 제공해주지 않았나 싶네요.

이상혁 글쓰기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작가의 입장에서 사전이란 무엇일까요?

유시민 제가 좀 더 젊었을 때는 사전을 거의 안 봤어요. 왜냐하면 정보의 입출력이 원활했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어휘가 잘 들어오고 내가 출력하고 싶을 땐 언제든지 금방 머리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래시계’가 자꾸 뜨는 거예요. 버퍼링이 심해졌지요(웃음). 이제 뇌의 시냅스 연결이 예전만큼 효율적이지 않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사전을 보게 돼요. 머리에서 바로 단어 출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전은 웹으로 다 검색이 되니까요. 편리하죠. 우리말 사전을 주로 이용할 때는 유의어 찾기가 저에겐 아주 도움이 돼요. 용례들도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사전은 아주 어려웠 때나 나이 들었을 때 필요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국어사전이 저에게는 그런 역할을 해 줘요. 이 단어 말고 뜻이 비슷한 다른 단어들을 알고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전을 이용합니다.

이상혁 국립국어원에는 ‘우리말샘’이라는 이름의 개방형 한국어 사전이 있습니다. 이 사전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시민 개방형 한국어 사전도 온라인 기반 시대에 의미가 있으니 잘 진행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완전히 신뢰할 수 없어요. 잘못된 정보도 적지 않고 누가 의도적으로 왜곡과 조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권위를 가진, 그 자체의 능력과 진실성이 담보된 그런 개방형 한국어 사전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은 국가가 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그럴 경우에 일반인이 적극

참여하는 건 반대입니다. 민간의 의견을 따로 낼 수 있게 해 주는 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의견을 받아서 검증하고 반영하는 건 전문가 영역입니다. 개방형 한국어 사전의 생명도 신뢰성에 있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이 의견은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작업은 국가가 보증하는 지성 집단의 후처리가 필수적이지요. 국가가 기본적으로 민간하고 경쟁할 필요는 없어요.

이상혁 개방형 백과사전에 대한 선생님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유시민 지금 백과사전이 집단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전의 제일 큰 문제는 정보의 진실성과 정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 작업이 이른바 집단 지성으로 추진되는 것은 좋다고 봐요. 한 사회 구성원들의 지적인 수준을 보여 주는 지표이기 때문이지요. 예컨대 저는 독일어와 영어 위키사전을 종종 보는데요. 우리 것과 수준 차이가 너무 커요. 그 정보의 내용이나 정확성, 그것을 문장으로 가공하는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우리가 독일하고 국내 총생산(GDP) 차이만 나는 게 아니라 이 집단 지성의 수준의 차이도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지요. 영어는 사용 기반이 전 세계이니까 영어는 뭐 말할 나위도 없고요.

이상혁 외래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유시민 저는 민족주의적인 언어관을 갖고 있진 않아요. 다른 모든 문화가 그러하듯이 언어는 서로 접촉하고 충돌하고 진화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순수한 우리말, 우리 언어’ 이런 것에 대해 저는 가치를 크게 부여하진 않아요. 언어는 사회·문화적 진화의 산물이잖아요? 삼국시대에 신라, 고구려, 백제의 말이 얼마나 달랐을까요? 그 다음에 몽골이 침략해 들어와서 한동안 지배했을 때 몽골 말이 많이 유입되었겠지요. 임진왜란 때는 왜군이 들어와서 일본어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고요, 중국 말의 영향은 말할 것도 없지요. 특히

우리는 한자를 오랜 기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중국어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겠지요. 근대에 들어와 일제 강점기를 거쳤기 때문에 일본말의 유입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광복 이후 미군정을 겪은 후에 지금까지 70년 동안 영어가 우리 사회에 무지막지하게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외래적인 요소와 교섭과 접촉, 충돌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말에 외국어와는 다른 ‘고갱이’는 있잖아요. 이게 흔들리면 곤란하겠지만, 민족주의적 언어관을 가지고 있질 않아서 그런지 저는 순수한 우리말을 찾아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일이 크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진 않아요. 한자 말이나 서구 외래어가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어휘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추상적인 관념, 아이디어, 물건, 사물, 기술 관련 용어들이 들어오니깐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말로 바꾸기 어려운 것은 외래어라도 수용해서 우리말로 만들어야지요. 그런 과정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상혁 그렇다면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꿔 쓰는 건 불필요한 일인가요?

유시민 저는 우리말과 어울리는 글을 쓰자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글이 말에서 너무 떨어진 게 많아요. 소위 말하는 ‘보그체’는 토와 어미만 우리말이지 그건 우리말·글이 아니에요. 어려운 중국 한자어를 계속 고집하는 것도 문제지요.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고 그 말의 뜻이 잘 전달되지 않으니 한자를 병기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이 있으면 그것이 더 좋지요. 그러다 보면 자꾸 우리말이 생기거든요. 예전에 ‘갓갈’을 노견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일본 말이거든요. ‘노견’에서 그걸 우리말로 풀어낸 ‘길어깨’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한 것만 못했어요. 나중에 시행착오

끝에 ‘갯길’로 정착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갯길’이라고 하면 뜻이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면 우리말다운 우리말, 곱고 예쁜 우리말이 탄생할 수 있어요. 제이시(JC)에서 ‘교차로’, 인터체인지에서 ‘나들목’으로 정착되는 걸 보면 이 역시도 그 뜻이 명확하게 전달된 좋은 예라고 봅니다. 우리말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의미가 분명하잖아요.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우리말 형식에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얼마든지 외래어가 들어오더라도 우리말의 본령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국립국어원이 그거 하는 데 아닙니까?(웃음) 다만 그걸 ‘순화’라는 표현으로 포장하는 건 동의하기 어려워요. 순화라는 것은 순수한 것과 오염된 것을 전제한 말인데 완전히 순수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언어는 어차피 다 섞인 거 아닌가요?

이상혁 작가님께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관광 유적지를 돌아다니면서 공공 언어에 대하여 지적을 하시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공공 언어에 대한 작가님의 평소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시민 오죽헌 사례를 보면 오죽헌 관리 사무소의 책임이 아니에요. 문화재청의 책임이지요. 문화재청이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 안내문은 건의를 하게 되면 문화재청의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요. 그런데 문화재청 안내문을 심의하는 구성원들의 언어관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가부장제의 남성 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사상적으로 보면 마치 우월한 정보력을 과시하는 듯하지만, 쓸데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한자 말 등을 잔뜩 집어넣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수십 년째 변하지 않은 우리의 문화적 수준을 보여 주는 안내문입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마찰이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의 언어생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해요. 우리말에 대한 보편적 특성과 개성, 미학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상혁 영어 등의 외국어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유시민 조금 다른 말이지만 우리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과연 잘할까요? 자기 모국어에 기대어서 외국어가 자라는 겁니다. 뇌 과학자 연구 결과도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는 모국어가 먼저 서고 하나의 언어가 중심을 잡고 연결 부위에 외국어를 다루는 영역이 생겨서 그 통로가 넓으면 외국어를 잘한대요. 자기 언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라야 외국어도 정확히 구사해요. 물론 영어 사용권에서 태어나서 그 언어에 직관이 생긴 아이들은 영어를 잘하겠지요. 이중 언어의 능력은 아주 특정한 조건 속에서만 구현되는 것이지요. 두 개 언어를 배운다고 평균적인 사람들이 완벽한 이중 언어 구사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혁 한국어와 외국어의 관계는 어떻게 보시나요?

유시민 한국어 문장이 요령부득이면 어떤 외국어도 깔끔하게 쓰지 못해요. 그래서 모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외국어를 쓰는 데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독일인들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여하면 제가 유창하게 독일어를 못해요. 그들이 다 잘 알아들어요.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제가 독일어를 잘할 필요는 없었어요. 물론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잘하면 더 좋지만, 독일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 이해했어요. 소통이 된 거거든요. 문제는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관건이지요. 따라서 모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외국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혁 유학 경험이 있으셔서 독일어도 잘 하시지요?

유시민 제 자랑 한번 해야겠네요. 97년 무렵에 제가 독일어 석사 논문을

널 때는 주제를 정하고 3~4개월 안에 논문을 제출해야 했어요. 지도 교수하고 어떤 주제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를 그렇게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석사 학위 논문은 창조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합의한 주제를 가지고 정해진 기한 안에 중요한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모으고 그 정보를 독해하고 가공하고 해석하고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요령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물론 박사 논문은 창의적인 것이 있어야 해요. 제가 논문을 다 쓰고 나서 공부 잘하는 제 독일 친구에게 일주일 정도 교정 좀 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다음날 가지고 왔더라고요. 자기가 발견한 문법 오류 두 개 말고는 별로 해 줄 말이 없대요. 왜 그런가 물었더니 자신의 문장과 저의 문장이 완전 달라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제 논문은 신문 기자의 글쓰기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한겨레신문 통신원을 할 때인데 제가 논문을 쓰면서 우리말로 글을 쓰듯이 독일어로 논문을 쓴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는 문장을 빼고는 제가 주로 단문 위주로 글을 썼어요. 논문의 분량도 한 70쪽밖에 안 되는 짧은 논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점을 받았거든요. 그 학기 졸업생 중에서 복수의 평가 교수가 다 만점을 준 경우는 저밖에 없었어요. 만점 받은 이유를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평가서를 받아 보고 알았어요. 신청을 하면 그 평가를 볼 수 있는데요, 핵심은 이런 거였어요. 최신 자료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잘 모았고, 그것을 주제에 맞게 잘 해석하고 활용했으며 이해하기 쉽게 논문을 작성했다고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논문도 알아듣기 쉬우면 되는 거예요. 제 자랑질입니다(웃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한국어 문장이 요령부득이면 어떤 외국어도 깔끔하게 쓰지 못해요. 그래서 모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외국어를 쓰는

데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이상혁 선생님께 한국어와 한글은 어떤 존재일까요?

유시민 호모 사피엔스는 누구에게나 모국어라고 있고 전 한국어라는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한국어에 대한 특별한 감정은 없어요. 그런데 한글은 특별하지요. 한글은 축복이고 세종대왕이 주신 우리 삶의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는 주장까지는 할 수 없지만, 가장 훌륭한 일을 한 왕인 것은 확실해요. 제가 본 역사에서 왕이 우매한 민중을 위해서 문자를 만들어 그 생각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소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편하게 살기 바란다는 취지의 서문을 남기고 문자를 창제한 분을 동서고금을 통해서 세종대왕 말고 들어본 바가 없어요. 민중을 위해서 쉬운 문자를 만들어 준 그거 하나만으로 호모 사피엔스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한 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상 세종대왕이 그와 같은 문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광화문을 지날 때마다 ‘고맙습니다.’를 항상 외칩니다. 제가 그 글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민중을 위해서 이렇게 한나절이면 익힐 수 있는 문자를 창제하셨다는 걸 상상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세종대왕은 시간 여행자가 아니었을까 상상해 봐요. 결국 지금의 8천만 정도의 호모 사피엔스들에게 정말 엄청난 행운과 축복을 주신 거지요. 비록 장영실에게 곤장을 때려서 내쫓았다는 불미스러운 일이 나중에 있긴 했지만요(웃음).

이상혁 작가로서 앞으로 구상하고 계신 작품은 있으신지요?

유시민 작품이라는 말은 좀 낮간지럽고 민망하고요. 이제 곧 6월에 책이 나올 예정인데 《역사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영어로 하면 《History of Writing History》로 역사 서술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데 역사 서술의 역사로 제목을 붙이면 치렁치렁하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의 역사》로 줄였는데 이럴 땐 영어로 표기하면 도움이 되겠지요. 역사도 역사가 있거든요 역사의 발생사를 추적하는 작업인데, 정작 역사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재미 삼아 공부를 해 보고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출간하는 교양서입니다. 공부도 부족하고 나이도 먹고 해서 지적인 긴장도가 높은 글을 쓰는 것은 이제 한계가 온 거 같아요. 야구 선수로 치면 속구의 구속이 저하된 거지요. 이젠 제 글쓰기도 변화구를 구사할 수밖에 없고요. 변화구 구사도 힘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코치로 가야 하잖아요(웃음). 제가 이전에도 지적 긴장도가 아주 높은 글은 못 썼지만 《국가란 무엇인가》와 근간 《역사의 역사》와 같은 이런 글들은 이제 쓰기 힘들어요.

이상혁 그럼 조금 가벼운 글쓰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유시민 네, 그래서 앞으로는 여행 에세이를 써 볼까 고민 중이에요. 힘이 좀 덜 들 것 같아서요. 여행을 제가 많이 다닐 수는 없고요. 보통 사람들이 유럽 기행을 가면 일주일 동안에 몇 군데씩 보잖아요. 그것보다는 약간 심화된 수준의 자유 여행을 하면서 3박 4일 정도 한 도시를 둘러볼 수 있는 안내서를 계획 중입니다.

이상혁 마지막 질문입니다. 글을 잘 쓰고 싶어 하는 학생, 시민, 후학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글쓰기 관련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유시민 텍스트로 이루어진 책, 문자 텍스트와 함께 보세요. 문자 텍스트와 친하게 지내기. 심심할 때 글을 읽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글쓰기의 기본 출발점입니다. 출발선에 서지 못한 채 달리기를 할 순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 달릴 수 없어요. 문자 텍스트와 더불어 놀자. 그것이 글쓰기의 기본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